

6월의 기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 1.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1:8)'는 말씀처럼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이 해외 성회와 선교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2.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를 준비하는 DCEM과 성회를 위한 모든 손길을 기억해주소서.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게 하옵시고,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과 DCEM이 계속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3.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소란스러워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만나 주옵소서.
4.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의무를 진실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계절이 바뀌어 온 땅에 변화가 일 듯이 우리들의 신앙도 새롭게 하셔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5.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믿음과 겸손으로 주님께 엎드려 나아가게 하시어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6. 연약한 우리를 불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언제나 감사하게 하옵소서.

- 아멘 -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 순복음신안산교회(최용우 목사)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정환, 이태원,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 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하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행복은 나눌 때 온다.

유엔 인권위원회 식량특별조사관으로 활동했던 사회학자 '장 지글러'는 <탐욕의 시대>라는 책에서, 매년 1000만 명이 넘는 5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는 이유를 가난으로 인한 영양 결핍과 질병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이 지구상에 식량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먹고도 남을 만큼 이 지상에 음식은 넘쳐나는데 아이들이 굶어 죽는다는 것은 바로 탐욕 때문에 나누지 않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골목골목 다니며 폐휴지를 모아서 기부하는 할아버지도 있고, 구두를 닦아주고 받은 돈 중 동전을 따로 모았다가 기부하는 구두미화일도 있습니다. 또 어떤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매달 열매씩 내어 꾸준히 모아 그 돈으로 아프리카에 우물을 설치해 많은 사람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힘들고 각박한 세상이지만 이처럼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푸는 마음이 있기에 세상은 따뜻해지고 살맛 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우습고 재미가 있어서 제가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10대는 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60대는 낙이 없다. 70대는 이가 없다. 80대는 처가 없다. 90대는 시간이 없다. 100대는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면 이렇게 없는 것 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각한대로 인생은 이루어집니다. 없다고 생각하면 패배의식에 잡히며, 모든 것이 없는 방향으로 이끌려 갑니다.

성경에는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놀려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 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같은 제사를 기뻐 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나누어 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더 맡겨 주십니다.

하나님은 탐욕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욕을 버리고 나누어 주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놀려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 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그릇을 비워서 나누어주고, 빈 그릇을 주님께 가져오면, 주님은 계속해서 그 그릇을 채워 주십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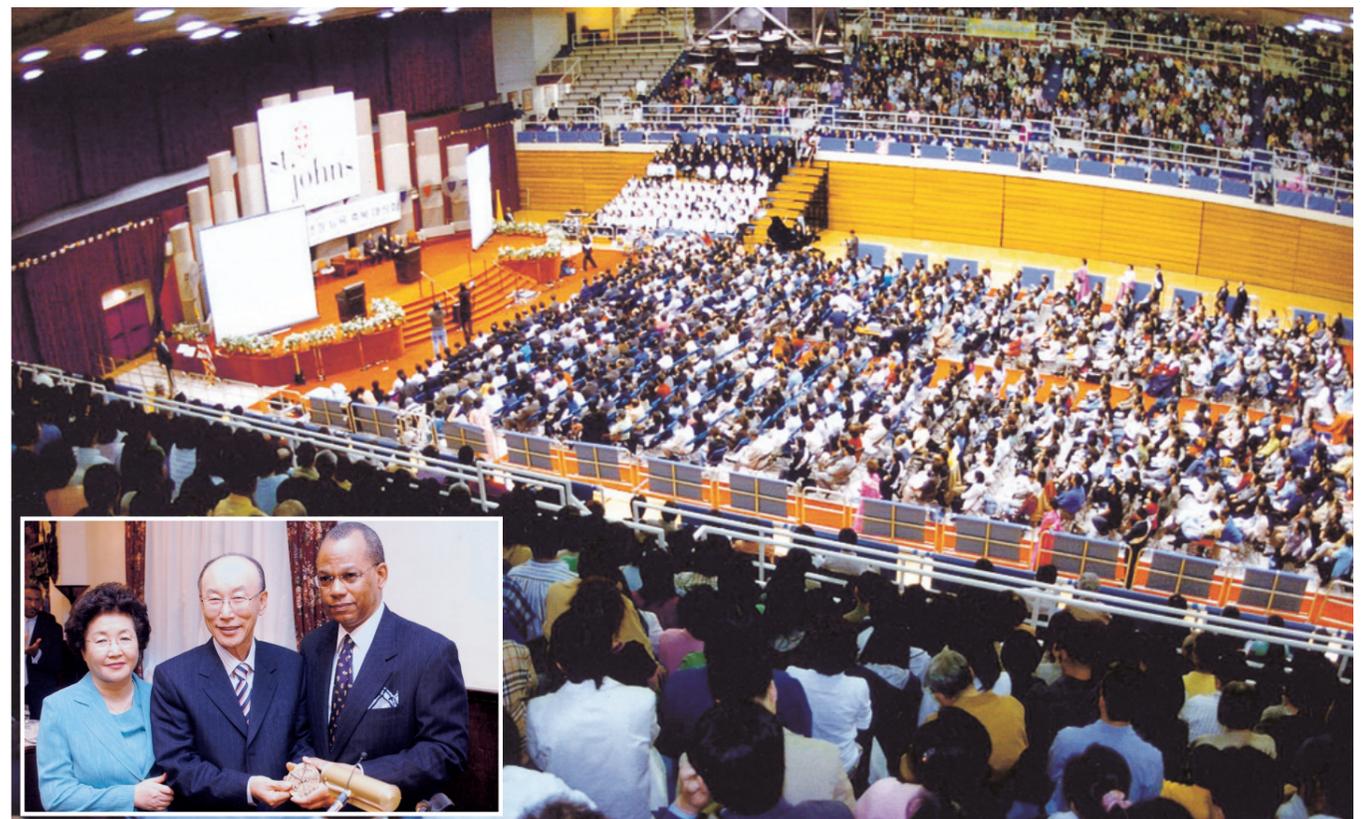


May News Letter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되돌아보는 해외 성회 하이라이트

미국 뉴욕, 2005년 5월 18일을 '조용기 목사의 날'로 선포



미국은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오면서 태동한 국가이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부강해진 미국은 도움이 필요한 타국에 선교사를 보내어 복음전파와 원조에 앞장섰다. 우리나라 또한 미국으로부터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 기독교 부흥이 일어났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세계적인 목회자로서 그 부흥의 물결이 거대한 파도가 될 수 있도록 과거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어 준 미국을 포함해 오대양 육대주로 말씀을 전하러 다니신다.

지난 2005년 5월 18, 19일 미국 뉴욕에서 양일간 개최된 성회는 뉴욕시의 크리스천 문화센터 교회와 뉴욕교회협의회(CCCNY)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DCEM이 주관하였다. 단일 교회로 세계 최대교회를 이룬 조용기 목사의 교회성장 비결을 알고자 연인원 1만여 명이

참석한 대규모 성회였다. 조용기 목사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으로 믿음에 관하여 설교했고 참석자들은 '아멘'과 박수로 화답하며 성회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성회 후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CCCNY가 수여하는 '더 패밀리 오브 맨 메달리온'을 수상해 한국교회의 위상을 한층 더 높였다. 1963년 제정된 본 상은 인류 모두에게 특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모범을 보인 지도자에게 주어진다. 존F. 케네디, 리처드 닉슨, 록펠러 등 전직 미국 대통령과 유명 경제인이 수상한 권위있는 상이며, 1986년을 끝으로 수상자를 정하지 못했으나 조용기 목사가 세계선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2005년 5월 근 20년 만에 시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용기 목사의 뉴욕 성회는 뉴욕시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당시 뉴욕시 시장 마이클 블룸버그(現 세계보건기구 글로벌 대사)도

'조용기 목사가 뉴욕시를 방문해 대성회를 인도하여 뉴욕시의 영적 부흥을 이룩하였으며, 뉴욕 시민과 한국인 교포들의 화합을 위한 가교 역할까지 충실히 감당해 주어 감사하다'며 감사장을 전해왔다. 뉴욕시의 브루클린과 브롱스에서 2005년 5월 18일을 '조용기 목사의 날'로 선포하며 조용기 목사의 뉴욕 성회를 기념했다. 한국의 지상파 TV뉴스와 주요 신문에서도 조용기 목사의 뉴욕 성회 관련 내용을 다루며, 기독교 신자와 비신자를 막론하고 긍지를 느끼고 있는 분위기라고 보도했다.

2005년 5월 뉴욕 성회는 세계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조용기 목사의 뜨거운 열정에 하나님께서 응답 해주신 뜻깊은 성회였다. 다가올 성회들도 기도로 준비하여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주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가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셔서 주야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려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3. 치료함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건강과 치료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 이후로 다 병이 들었습니다. 영이 병들고 몸이 병들고 가정과 사회와 전세계가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이 병에서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질병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 혼, 육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에는 항상 치료의 역사가 따랐습니다. 우리는 병 들었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영적인 병, 마음의 병, 도덕적인 병, 가정의 병, 생활의 병, 모든 병을 치료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4. 형통한 삶을 주시는 예수님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참된 형통은 형통의 근원 되시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을 지었을 때, 아담은 모든 생활에 완전히 형통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임하여서 만사에 형통하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5.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건강과 치료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 이후로 다 병이 들었습니다. 영이 병들고 몸이 병들고 가정과 사회와 전세계가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이 병에서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질병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 혼, 육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에는 항상 치료의 역사가 따랐습니다. 우리는 병 들었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영적인 병, 마음의 병, 도덕적인 병, 가정의 병, 생활의 병, 모든 병을 치료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고후 5:8)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떠나면 곧장 주 예수와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죽음이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크나큰 영화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우리도 부활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 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나 깨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자고 깨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두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돈을 바라보고 권력을 바라보고 지위나 권세를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는 세월이 흘러가면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일생을 살면서 결코 절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 예수를 바라보면 절망하지 않을 것일까요?

1. 죄 사함을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과 용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죄가 다 드러나고 별거벗은 수치를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께 반역한 죄를 짓고 있고 또 거기에 자기 의지로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이러한 죄의 사슬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힘으로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고 정결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지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오면 예수님께서서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2. 거룩한 삶을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음란과 방탕과 퇴폐함이 꼭 들어차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교회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으로 삼고 자기의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시어 다윗의 생애 속에 형통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님을 진실로 목자로 모셨으면 우리는 예수님께 절대 순종하고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드려 헌신하며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5.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건강과 치료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 이후로 다 병이 들었습니다. 영이 병들고 몸이 병들고 가정과 사회와 전세계가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이 병에서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질병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 혼, 육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히 9:27)고 말합니다. 불신자에게 죽음은 인생의 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히 9:27)고 말합니다. 불신자에게 죽음은 인생의 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죽음이 시작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고후 5:8)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떠나면 곧장 주 예수와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죽음이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크나큰 영화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우리도 부활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 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나 깨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자고 깨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두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스승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교역자 제직 한 마음 모아 스승의 날 행사 나서

스승의 날인 5월 15일 DCEM 총재 조용기 목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스승의 날 행사가 CCMM빌딩 11층에서 열렸다. 이날 자리에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위임목사를 비롯한 교역자들과 박경표 장로회장 및 제직 대표들이 함께했다. 제자들은 신앙의 스승인 조용기 목

사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스승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담아 ‘스승의 은혜’를 합창했다. 이어 이영훈 목사가 제자들을 대표해 선물을, 김호성 부목사가 꽃다발을 전달했다. 각 기관 대표들은 성도들을 대표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여러

분들이 스승의 노래를 불러주니 감개 무량하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감사드린다”며 제자들을 축복했다. 또한 더욱 열심 충성하여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당부했다.



순복음동경교회 ‘삿포로 신학교’ 개교

일본 전문적 선교 양성에 박차를 ...



비전 삼아 지금껏 많은 지성전을 세워오고 있다. 금번 선교양성기관으로 설립된 삿포로 바이블컬리지는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를 고문으로, 이사장은 시가키 시게마사 목사(순복음동경교회), 교장은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명예고문으로 최명우목사(순복음강남교회) · 최용우목사(여의도순복음신안산교회) 이다. 본 컬리지 응시 자격은 일본 선교를 향한 비전과 선교사 소명을 받은 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학비는 등록금과 주거비 및 식사비 포함 연180만엔이다.

(문의 +81-11-211-4511, 홈페이지 <http://sapporobible.college.kr/>)

순복음동경교회 삿포로 성전



올해로 창립 43주년을 맞이한 순복음동경교회(담임 시가키 시게마사 목사)는 삿포로 바이블 컬리지를 설립하여 오는 2021년 4월 1기생을 모집한다. 삿포로 바이블 컬리지(Sapporo Bible College)는 일본 순복음동경교회 삿포로성전 별칭 신학교육기관으로, 순복음의 영성으로 훈련된 현지 선교사를 양성하는 전문 기관이며, 지난 3월 일본 법무성 삿포로 출입국체류관리국의 승인을 통해 개교 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본 컬리지는, 2년간 완전 기숙사제로 일본어 교육과 함

께 선교에 필요한 능력을 습득하는 커리큘럼으로 진행되며, 졸업 후 약 1년간 순복음동경교회에서 수련전도사 인턴십 과정을 거쳐 순복음동경교회가 개척할 지성전으로 파송·개척해 일본 현지 선교 사명을 감당해나가게 된다.

일본은 기독교가 전해진 지 150년이 지난 지금도 기독교 복음화가 1%에 못미치는 상황에서, 순복음동경교회(담임 시가키 시게마사 목사)는 전 일본 복음화를 꿈꾸며, 오는 2033년까지 일본 각지 100개의 교회 설립을